

#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 03 말씀 선포

심홍보

### III 말씀 선포

#### 0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 091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 092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루카 4,16-21)
- 093 단식과 안식일의 주인(마르 2,18-28)
- 094 출세와 섬김(마르 10,35-45)
- 094-1 가장 큰 계명(마르 12,28-34)
- 095 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종합

#### 10 나를 따르라(주님의 부르심-응답)

- 101 어부들을 부르시다(루카 5,1-11)
- 102 첫 제자들(요한 1,35-42)
- 103 레위를 부르심(마태 9,9-13)
- 104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요한 1,43-51)
- 104-1 예수님을 따르려면(루카 9,23-27.57-62)
- 105 주님의 부르심-응답 종합

#### 1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산상설교)

- 111 참행복(마태 5,3-12)
- 112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20)
- 113 화해하여라(5,21-32)
- 114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33-48)
- 114-1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마태 6,1-18)
- 115 산상설교 종합

#### 12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하느님 나라)

- 121 하느님이나, 재물이나(마태 6,19-24)
- 122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마태 6,25-34)
- 123 보물과 그물의 비유(마태 13,44-53)
- 124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르 4,1-9; 13-20)
- 124-1 씨앗의 비유(마르 4,26-32)
- 125 하느님 나라 종합

## 0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희년 선포-사도직 선포)

### 091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 성경소구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4<sup>1</sup>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sup>2</sup>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3<sup>3</sup>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sup>4</sup>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sup>5</sup>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sup>6</sup>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sup>7</sup>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8<sup>8</sup>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sup>9</sup>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sup>10</sup>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sup>11</sup>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 묵상안내

예수님께서서는 먹을 것을 만들어 내라는 악마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답하십니다. 무슨 뜻일까? 아예 굶겠다는 이야기이신가?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 묵상해 봅시다.

‘무모한 도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뒷배경과 누군가나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나,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한 것이 아닌, 요행이나 명분만으로 밀고 나갈 때, 결국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고 오만불손하여 하느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허황된 욕심을 채우고 허황된 꿈을 이루려고 하는 탐욕스럽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우리의 의지에 비추어,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이 어떤 가르침인지 되새겨 봅시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3. 우리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인정하고 안분지족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비추어 우리가 오늘 추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 **묵상노트**

### 성경소구 나자렛에서 회년을 선포하시다(루카 4,16-21)

4<sup>16</sup>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sup>17</sup>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sup>18</sup>“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sup>19</sup>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sup>20</sup>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sup>21</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 묵상안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원과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구절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파견되었고, 우리의 구세주로 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소명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비루하게 살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오만불손하게 사는 이에게, 물질이나 권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 있으므로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갈망하고 주 하느님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재물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갇히거나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며, 구원과 은총의 하느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오늘 무엇을 갈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3. 주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살고 계십니까?

목상노트

### 성경소구 단식과 안식일의 주인(마르 2,18-28)

2<sup>18</sup>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흔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으나?**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20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21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 댄 새 형겅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22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24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28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 묵상안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고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외도 있고, 더군다나 그 사고나 관습이 항상 옳바르거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소수의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와 나의 행복과 미래에 그치지 않고,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모두 그리고 후세에게까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제도와 문화를 그려나갑시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오늘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며, 위태롭게 하는 사고와 관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오늘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사고와 관습은 무엇입니까?

3. 내 삶 안에서 나와 세상을 살리게 하는 사고와 관습 또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사고와 관습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회개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 **묵상노트**



### 성경소구 출세와 섬김(마르 10,35-45)

10<sup>35</sup>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36</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sup>37</sup>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sup>38</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sup>39</sup>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sup>40</sup>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sup>41</sup>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sup>42</sup>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sup>43</sup>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sup>44</sup>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sup>45</sup>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묵상안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얻어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채우게 되면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을 얻게 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도 같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이웃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까?
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와 자연에 어떤 행복과 기여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까?

목상노트

## 094-1 가장 큰 계명(마르 12,28-34)

### 성경소구 가장 큰 계명(마르 12,28-34)

12<sup>28</sup>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 묵상안내

가끔 생각해 봅시다. 왜 예언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감사는커녕 오만불손하게 되고 세상을 이용하고 착취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미움과 원망을 받아, 결과적으로 내가 살기 어려워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 돈, 권력, 명예, 쾌락?
3. 내가 왜 주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 10 나를 따르라(주님의 부르심-응답)

101 어부들을 부르시다(루카 5,1-11)

### 성경소구 어부들을 부르시다(루카 5,1-11)

5 <sup>1</sup>예수님께서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sup>2</sup>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sup>3</sup>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sup>4</sup>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sup>5</sup>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sup>6</sup>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sup>7</sup>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sup>8</sup>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sup>9</sup>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sup>10</sup>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sup>11</sup>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묵상안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잡이는 자기 직업이자 생이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기잡기에 좋은 자리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고기를 잡아 왔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 바다와 물길을 아는데, 누구보고 이래라저래라하는 거야?’ 라고 하며 반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면 베드로의 용감한 성격이랄까,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서는 기적을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물론 자신이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서 떠나기 위해 바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내가 느끼고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술이 어떻게 같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유독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4.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처세술에서 벗어나, 주 하느님이 주인이시며, 옳으시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먹고,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 **묵상노트**

### 성경소구 첫 제자들(요한 1,35-42)

1 <sup>35</sup>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sup>36</sup>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sup>37</sup>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sup>38</sup>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sup>39</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sup>40</sup>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sup>41</sup>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sup>42</sup>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 묵상안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치도록 하는 표시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동예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한 속죄양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여 따라나섭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성을 발견하고, 돌아와 형 시몬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안드레아가 드디어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너는 케파(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알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누구십니까?
3. 우리는 왜 어떤 체험과 느낌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4.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첩에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비춰진 내 모습과 내가 수행하는 활동이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목상노트**

**성경소구** 레위를 부르심(마태 9,9-13)

9<sup>9</sup>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sup>10</sup>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sup>11</sup>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sup>12</sup>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sup>13</sup>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 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묵상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왜 세상에 오셔서 맛있는 점심 먹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커피 마시고,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저녁 먹고 포도주 한잔하며 수다 떨고 형제자매들과 어울리는 일에 취미를 못 들이고, 늘상 가난한 이들과 환우들과 모자란 사람들에게 가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그런 길로 초대하실까?

예수님의 신원과 존재 목적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3. 예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셨을까?

**묵상노트**

### 성경소구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요한 1,43-51)

1 <sup>43</sup>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sup>44</sup>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sup>45</sup>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sup>46</sup>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47</sup>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sup>48</sup>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sup>49</sup>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sup>50</sup>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sup>51</sup>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묵상안내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본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필립보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메시아성을 발견했을까? 예수님의 어디를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타나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표상은 대대로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타나엘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타나엘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엄위하고 거룩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메시아성을 발견합니까?
3.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4. 주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 비친 내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 **묵상노트**

**성경소구** 예수님을 따르려면(루카 9,23-27.57-62)

9<sup>23</sup>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sup>24</sup>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sup>5</sup>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sup>26</sup>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sup>27</sup>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sup>57</sup>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58</sup>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sup>59</sup>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60</sup>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sup>61</sup>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62</sup>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묵상안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수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나는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 있기에 내 주님도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조차 하면서,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체득하고 간직해온 좌우명과 처세술로 익혀지고 굳어진 내 인격과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나름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굳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나보다는 예수님이 옳고 좋으시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세상보다 더 좋고 나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기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제, 언젠가 한 번 진하게 그리고 충분하다고 여길 만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 왔고,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게 다가가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 함께해 왔고,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단점과 모자람을 부끄러이 가슴에 품고 피하고만 싶은 사건과 상황을 부둥켜안고 살아왔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언제까지라는 약정도 없이, 더군다나 더 나아지고 좋아지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날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나가기로 합시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앞에 숙제처럼, 그러면서도 도전처럼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마저 풀고 해결하고 나서 주님께 다가설 것인가?
4.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가장 아쉽고, 애착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 1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산상설교)

111 참행복(마태 5,3-12)

### 성경소구 참행복(마태 5,3-12)

5<sup>3</sup>“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 묵상안내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자신이 꿈꾸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신분상승이나 물질적인 풍부함을 달성하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고, 다른 이들보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소유를 적게 취함으로써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 진정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 묵상노트





### 성경소구 세상의 소금과 빛(마태 5,13-20)

5 <sup>13</sup>“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sup>14</sup>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sup>15</sup>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sup>16</sup>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sup>17</sup>“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sup>18</su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sup>19</sup>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sup>20</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목상안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잘 되어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계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기다리시는가 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은 누군가에게 선도적이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점보다는 양보를,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수행하도록 역설하시는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음식을 차리고, 하루를 준비하고, 매 끼니 먹고, 청소하고, 뒤처리하는 등 살아가면서 삶의 매 순간을 반복적이고 귀찮게 평범하고 마땅하게 채우고 때워야만 하는 인생의 짐을 특혜와 특권으로 피하지 않고, 마치 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수행하면서 묵묵히 꾸준히 수행하는 것도 일상의 성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 봅니다.

###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동네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3. 내가 오늘 내가 머무는 시공에서 수행하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4. 내가 가장 잘 지키는 의무와 내가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 **묵상노트**

**성경소구** 화해하여라(마태 5,21-32)

5<sup>21</sup>“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sup>22</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sup>23</sup>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sup>24</sup>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sup>25</sup>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sup>26</sup>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sup>27</sup>“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sup>28</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sup>29</sup>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sup>30</sup>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sup>31</sup>“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sup>32</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묵상안내**

지난 과목의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마태 5,19)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과거 자연법 계명처럼, 모세 율법서의 계명으로 내려오던 철칙 같은 계명들이 추구하는 거룩함을 향하여 완전하고도 온전한 수행을 끝까지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이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꼭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것마저 미루어 짐작하고 배려하면서까지 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23-24절)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율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고 온전하게 살피고 수행하여 거룩해지라고 하십니다.

###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게 원망을 품고 있는 이가 있는가요?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 내 눈이나 내 손으로 유감에 젖고 죄마저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4. 내 가정과 배우자와 가족에게 충실하십니까?

### **목상노트**

**성경소구** 정직하고 폭력을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33-48)

5<sup>33</sup>“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sup>34</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sup>35</sup>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sup>36</sup>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sup>37</sup>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sup>38</sup>“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sup>39</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sup>40</sup>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sup>41</sup>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sup>42</sup>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sup>43</sup>“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sup>44</sup>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sup>45</sup>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sup>46</sup>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sup>47</sup>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sup>48</sup>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묵상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빚대어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실이면 ‘예’, 사실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응답하고, 진실되이 살아나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누군가를 적으로 삼거나 맞서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에게 청하고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원수마저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 하느님에게는 잘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두 사랑

받는 자녀들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르십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스스로 공정하고 떳떳하십니까?
3. 누군가가 밋거나 만나고 싶지 않거나 폭삭 망하기를 기대하십니까?
4.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 **묵상노트**

**성경소구** 올바른 자선,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올바른 단식(마태 6,1-18)

6 <sup>1</sup>“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sup>2</sup>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sup>3</sup>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sup>4</sup>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sup>5</sup>“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sup>6</sup>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sup>7</sup>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sup>8</sup>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sup>9</sup>“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sup>10</sup>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sup>11</sup>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sup>12</sup>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sup>13</sup>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sup>14</sup>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sup>15</sup>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sup>16</sup>“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sup>17</sup>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sup>18</sup>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 묵상안내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스스로의 만족감과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주 하느님에게서 분에 넘치게 받은 은총과 사랑에 감응하여 형제자매들에게 보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이르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위선적으로 자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 하느님 대전에 겸손되어 기도하도록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시고는 덧붙여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르시면서, 단식 역시 자신의 성취욕이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희생하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숨은 일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3.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주 하느님께서 나를 끄찍이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4. 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 12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하느님 나라)

121 하느님이나, 재물이나(마태 6,19-24)

**성경소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느님이나 재물이나(마태 6,19-24)

6<sup>19</sup>“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훔고 들어와 훔쳐 간다. <sup>20</sup>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훔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sup>21</sup>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sup>22</sup>“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sup>23</sup>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sup>24</sup>“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묵상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곳과 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될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눈길이 쏠리며 집중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중고등학생의 부모들에게는 학원과 과외선생님들이 유난히 눈에 잘 띄고 관심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르십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가 요즘 살면서 주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3. 우리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향하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장애가 됩니까?

목상노트

### 성경소구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마태 6,25-34)

6<sup>25</su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sup>26</sup>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 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sup>27</sup>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sup>28</sup>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sup>29</sup>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sup>30</sup>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sup>31</sup>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sup>32</sup>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sup>33</sup>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sup>34</sup>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 묵상안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몇 번씩 옷장을 열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깊고 단단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도.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나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고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하느님의 나라 건설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경험해 보고 또 믿습니까?

4.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성직자 수도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 **묵상노트**

**성경소구** 보물과 그물의 비유(마태 13,44-53)

13 <sup>44</sup>“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 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sup>45</sup>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sup>46</sup>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sup>47</sup>“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sup>48</sup>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sup>49</sup>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 어, <sup>50</sup>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sup>51</sup>“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sup>52</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셴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 내는 집주인과 같다.” <sup>53</sup>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묵상안내**

예수님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다시 숨겨놓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 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 포기하고 다 바꾸어서 선택할 정도로 우리 생애의 보물입니까?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 생애에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가 되는 그러면서 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 습니까?
3. 주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4.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것보다 실제로 훨씬 큰 이익이 됩니까?

목상노트



**성경소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해설(마르 4,1-9; 13-20)

4 <sup>1</sup>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그대로 있었다. <sup>2</sup>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sup>3</sup>“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sup>4</sup>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sup>5</sup>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sup>6</sup>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sup>7</sup>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sup>8</sup>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sup>9</sup>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sup>13</sup>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sup>14</sup>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sup>15</sup>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 버린다.

<sup>16</sup>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sup>17</sup>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sup>18</sup>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sup>19</sup>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sup>20</sup>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묵상안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뱃 받고 주님께 다가가 더 행복해지고, 오늘을 기쁘게 살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형제자매들과 나눔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겹치지만,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박해로 헤매기도 하며, 심지어는 유혹에 빠져 주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배반하기도 하지만, 거듭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 주님 품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느님 나라 건설을 향한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어 주십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를 향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3. 내 마음에 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심어졌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까?
4.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 **묵상노트**

### 성경소구 씨앗의 비유와 해설(마르 4,26-32)

4<sup>26</sup>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sup>27</sup>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sup>28</sup>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sup>29</sup>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든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sup>30</sup>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sup>31</sup>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sup>32</sup>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 묵상안내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하나 되는 일은 멀고도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차곡차곡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서는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우리가 꿈꾸어 왔던 성인들의 순간을 공유하게 되고, 성인들의 생애를 닮아가게 됩니다.

###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께서 나를 주님 사랑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3. 주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사랑이 점점 커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목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나님을 느껴봅시다.